

추수

21호

2015 가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웹진 '녹두꽃' 수신요청 방법



나주목사 내아

주요사업

- 재단포커스
- 기획특집

인터뷰&칼럼

- 녹두칼럼
- 인터뷰 ① 발굴! 참여자 유족
- 인터뷰 ② 동행공간

동학농민혁명

- 이달의 유물
- 인물열전
- 유적지

소개합니다

- 건강과 생활
- 기념관 나들이

녹두꽃 소식

- 사발통문
- 전국 네트워크
- 알려드립니다

2015 가을

2015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
1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5년 가을호(21호) 발행 2015년 10월 1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행인 김대은 주소 전북 김제시 서면인동로 1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homepage www.1894.or.kr 제작 에이전시비비비
본지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계간지 <녹두꽃>은 창간호(2010년 가을호)부터 이인포커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웹진 '녹두꽃'은 수신요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djiori@1894.or.kr로 수신희망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015 가을 21호

02	녹두칼럼	전주화약, 그 의미를 되살리자 -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04	기획특집	역사저널 <그날> '동학농민혁명' -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동학농민혁명
06	재단포커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10	인터뷰 ① 발굴! 참여자 유족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지주 김덕명 장군 - 김석태 참여자 김덕명 장군의 증손
14	인터뷰 ② 동행공감	동학농민혁명군 확대·재편, 백산봉기 - 김원철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회장
17	인물열전	최시형과 동학의 푸른 꿈을 함께한 손천민(孫天民, 1857-1900)



19	유적지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1
22	이달의 유물	7월의 유물 - 나주명록 外
24	건강과 생활	가을철, 조심해야 할 3대 열성 질환
26	기념관 나들이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아서
30	기념재단 사발통문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35	네트워크 소식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37	알립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5년 가을호(21호)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발행인 김대곤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제작 한솔디자인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주화약, 그 의미를 되살리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전주화약이 체결된 5월 8일(양력 6월 11일)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되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일단 전주화약일이 기념일로 건의된 만큼 이 날에 맞춰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념일을 둘러싼 담론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주화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4월 27일(양력 5월 31일)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홍계훈이 이끄는 정부군도 전주성을 포위하고 동학농민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다. 이에 놀란 조정은 4월 29일 순변사 이원희에게 증원군을 이끌고 전주로 내려가도록 하였다.

더욱이 정권의 위기를 느낀 조정은 청국에도 지원병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청국군이 5월 7일 충청도 아산에 도착하였는데, 이는 일본에 군대를 파병할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일본도 5월 7일에 해군 420명을 서울에 주둔시켰다.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서 국제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급박한 순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농민군과 홍계훈 부대는 전주성을 사이에 두고 4월 28일과 5월 3일에 대대적인 공방전을 벌였다. 이 싸움에서, 특히 5월 3일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크게 패하였다.

5월 3일 패전으로 동학농민군 중에는 크게 동요하고 도망치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러자 전봉준은 점을 쳐서 “사흘을 지나 아무 시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라. 이미 여러분은 나를 믿고 따랐으니 전쟁터에 들어와서 내 말에 따라 조금만 더 참지 못하겠는가.” 하고 동학농민군들을 달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래의 목표대로 농민군이 서

울로 진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홍계훈이 이끄는 정부군과 결사항전을 전개할 처지도 아니었다.

결국 전봉준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정부의 철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5월 8일 이른 아침 양쪽 사이에 '전주화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하고, 홍계훈이 이끄는 정부군은 무사히 전주성을 수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는 일정한 타협이 있었으며, 그것은 전봉준과 홍계훈 사이에 이루어졌다. 타협 조건은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조항 27개조를 국왕에게 보고하여 고치겠다는 것과 동학농민군의 신변보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전주화약은 동학농민군이 아무런 소득 없이 전주성에서 철수한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지만, 동학농민군의 존재가 정부의 타협 대상이 될 정도로 성장한 점, 전주성 철수 시 동학농민군의 조직과 무장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점, 폐정개혁에 대한 동학농민군의 의지가 보다 현실적으로 확인된 점 등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정부쪽에서 얻어낸 전주성 철수조건 그 자체보다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 점령과 철수 과정에서 획득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주화약은 이후 집강소의 기반이 되었으며 국가적 위기에 처한 국난을 당해 민족적 대동단결이라는 민족공동체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전주화약은 장기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지랭이 농민 대중들이 역사의 주체로 나서는 전환점이었을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주체로 자리매김 되고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그것은 21세기 바람직한 정치모형인 관민협치의 첫 한국 사례이자, 수평적 정치역학을 역사적으로 증험해보인 소중한 역사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전주화약으로 상징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일반 대중들이 역사의 주체가 된 기념일로, 민중적 민족공동체의 상징으로, 잘못된 정치와 사회를 바로잡아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실천의 날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있어,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고 민족이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한다.

※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주화약으로
상징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일반 대중들이
역사의 주체가 된
기념일로,

민중적 민족공동체의
상징으로,

잘못된 정치와
사회를 바로잡아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실천의 날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저널 <그날> '동학농민혁명'

났네 닐어 난리가 닐어! 동학농민혁명



한국방송공사(KBS1-TV)에서는 한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을 기획·제작 방영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40분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 한편 올바른 역사인식의 대중적인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좌표와 내일의 전망을 모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역사저널 그날>에 갑오년의 역사가 방영되었다. 지난 8월 9일 <제85회 역사저널 그날>은 ‘동학농민혁명, 닐네 닐어 난리가 닐어!’가 주제였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보다 깊은 인식에 접근하여 해당 역사의 진실에 가닿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일종의 ‘역사 토크쇼’이다.

제85회 역사저널 그날 ‘닐네 닐어 난리가 닐어! 동학농민혁명’ 프로그램 진행은 최원정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이윤석(방송인), 류근(시인), 최태성(한국사 교사), 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동학농민혁명 전공연구자로는 신영우(기념재단 이사) 충북대 사학과 교수가 특별 게스트

로 참여했다.

이날 방영된 프로그램은 제1차 동학농민혁명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의 흐름을 짚어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차 동학농민혁명 발발 원인으로 당시 탐관오리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지방관리의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왕조 말기, 봉건제도의 한계를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대목에서 고부농민봉기의 시발점인 사발통문 거사계획 수립과정과 그 내용 중에서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 서울)로 직항할 것'이라는 문구 등을 통해 농민들의 의식성장과 그에 따른 변혁주체세력 형성, 민란이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가는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중반에서부터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초점이 맞춰져 전개되었다. 1894년 4월 27일(음) 동학농민군이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호남의 수부였던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정부는 청나라에게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파병이라는 망국적인 결정을 내렸다. 조선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국 군대가 조선에 진출하자 조선을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혈안이 되어 기회를 엿보던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서둘러 파병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경복궁 무단점령, 청일전쟁 도발 등을 자행하였고, 동학농민혁명군은 갑오년 9월 삼례에서 척왜항전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일어섰다. 그 후 동학농민혁명군은 일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해 한양을 향해 북상하던 중 공주우금치에서 근대적인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아프게 되짚어보는 것으로 방송은 마무리되었다.

신영우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한 후 다행스럽게도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기념사업단체들이 창립되어 헌신적으로 기념사업을 펼친 결과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음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KBS홈페이지(www.kbs.co.kr),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등재 신청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사발통문> 등 171건 등재 추진



사발통문



전봉준공초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지난 8월 31일 문화재청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이번에 등재 신청된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임명장, 회고록 등 동학농민혁명군 측의 기록 27건, 동학농민혁명군 진압에 가담한 관료 및 진압군의 공문서와 보고서 등 조선정부의 기록 115건, 민간인의 문집 및 일기 등 민간기록 16건, 개인이 목격하거나 구전된 내용을 기록한 개인 견문 기록 11건, 일본 측 관련 기록 2건 등 171건(약 11,000면)이다. 해당 기록물 보유기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50건), 고려대학교 도서관(30건), 국가기록원(5건), 국립중앙도서관(5건), 국사편찬위원회(6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60건),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3건), 천도교 중앙총부(10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건) 등 9곳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지난 6월 10일에는 한글박물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추진위원회는 학술연구 분과위원회를 4회 개최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재 신청 기록물 목록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등재 동의서를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확인을 한 뒤 문화재청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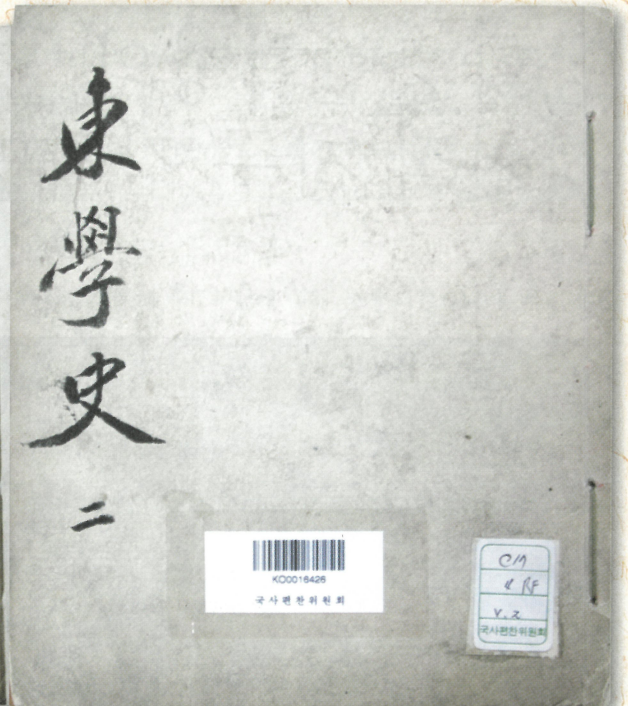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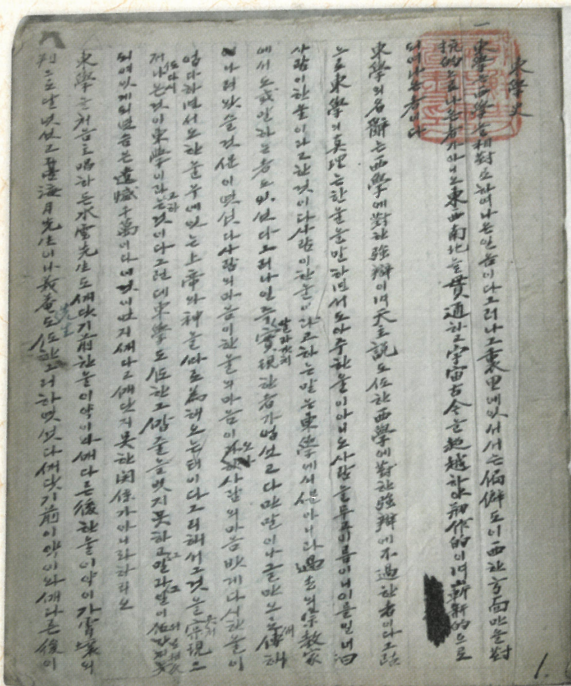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군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되고자 했다. 이들은 제폭구민(除暴救民), 광제창생(廣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들어 인간이 존중되는 평등사회, 민주사회를 지향했으며, 척왜(斥倭)를 내세워 일본의 침략을 막고 민족자주를 추구하였다. 무엇보다 집강소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했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세계유일의 기록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대해 집중적인 기록이 남아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 동학농민혁명군, 정부, 관료, 진압군, 민간지식인 등 여러 주체가 다양한 관점을 토대로 서술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완전성과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추진위원회는 이런 점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표현된 동학농민혁명군의 정신에 큰 가치를 두어 인류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판단하고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諭崇政大夫 親軍壯衛營正領
官兩湖招討使洪啓薰
卿受委兩湖體任非輕凡發兵
應機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
舊章慮或有予與卿獨斷廢置
事非密符莫可施為且意外難
不可不預防如有非常之命合符
無疑然後當就命故賜押第
三八符卿其受之故諭
光緒二十年四月初二日



동학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문화재청의 등재 대상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등재 대상 목록에 포함될 경우, 기록물 소장 기관들과 회의체를 구성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된 기록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등재 대상 기록물들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 기록물 2건은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6년 6~7월 중 최종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지주 김덕명 장군

김석태 참여자 김덕명 장군의 증손



Q 안녕하세요?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전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왜곡되고 축소된 채 뒤안길에 묻혀져 있던 김제의 동학농민혁명사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원평지역에도 기념사업단체를 창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아 고생하고 있는 최고원 씨를 주축으로 기념사업회를 창립한 후 지난 4년 가까이 이사장직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3년 12월에는 전국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맡게 되어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었던 김덕명장군 후손으로서 유족 현창사업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 3월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김덕명 장군님의 활동사항에 대해 어떤 분께서 전해주셨습니까?

저희 조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친께 ‘너의 할아버지가 매우 훌륭한 분이셨다고 한다. 그분의 행적을 밝혀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부친께서는 증조부님 관련 자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부산법원에 증조부님 관련 자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 증조부님의 사형판결문을 가져오기도 하셨습니다. 또 부친께서는 증조부님에 대한 추모집을 발간하시는 등 조부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저도 부친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 증조부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께 증조부님 얘기를 들었던 때는 제가 마흔 살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학란이라고 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증조부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거의 몰랐습니다. 이후 증조부님에 대한 자료와 서적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가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무렵쯤에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부친께서 말씀해주신 김덕명 장군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증조부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 주요 지도자 중 가장 연장자셨으나 한발 뒤로 물러서서 전봉준 장군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총참모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증조부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군 전체의 멘토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봉준 장군의 어머니가 연양김씨, 저희 집안에서 출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혈연의 끈끈함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연양김씨 집안은 전라감사도 부임하면 인사를 다녀갈 정도로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증조부님께서 지역에서 덕망이 높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위해 합세하는 사람이 많았고, 군자금을 모금할 때도 개인적인 감정이 가미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증조부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람을 해쳐서는 안되고 군자금을 모금할 때도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이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금티전투 패전 이후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11월말에 벌어진 원평구미란전투, 태인전투 이후에는 원평의 집강들에게 자신을 구명해달라는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강들은 증조부님을 살려주면 자신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도움은 줄 수 없지만 만약 체포되면 자식들은 살려 준다 약속하고 곧장 관군에 신고해 증조부님을 체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집강의 사람들은 증조부님과 한 약속을 지켜 처형된 증조부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할 수 있었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후손들을 돌봐줬다고 합니다.

Q 김제 원평은 동학농민혁명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학농민혁명사에 김제 원평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동력이자 든든한 바탕이 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증조부님께서 혁명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시면서 여러 지역에 걸쳐 활동하셨지만 그 본거지로 원평을 삼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했던 물적자원의 대부분을 증조부님께서 재산을 끌어 모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기 전해인 계사년(1893년) 충북 보은에서 보은집회가 열리던 때 원평에서도 집회가 열렸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전봉준 장군을 포함한 변혁 지향적인 동학교도들이 참여한 이 집회는 동학농민혁명 실행 가능성을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다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한 후 밀리고 밀려 후퇴하다가 재기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원평구미란이었다는 점 또한 우연한 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배수진을 친 것은 농민군이 이곳을 든든한 근거지로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마저 패배하여 동학농민혁명군이 재기하고자 했던 꿈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원평구미란전투에서 패배한 다음 날 태인으로 후퇴하다가 태인 성황산 부근에서 또다시 전투를 벌였으나 힘없이 무너져 주력부대를 해산하게 되었겠습니까? 즉 동학농민혁명은 원평에서 시작해서 원평에서 끝났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김덕명 장군 가족묘



김석태 후손집 벽을 장식한 동학농민혁명 스크랩 자료

Q 현재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김덕명 장군님의 묘역은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증조부님께서 처형되신 이후 원평 집강의 사람들이 시신을 모셔와 매장했던 곳은 금산면 장흥리 은곡마을이었습니다. 은곡마을에는 고조모님 산소가 있던 곳인데 바로 그 아래 증조부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위낙에 높고 깊고깊은 험한 산속이라 성묘라도 갈려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길을 정비한 다음에야 갈 수 있을 정도로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관리가 소홀해지고, 또한 조상님의 산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후손들이 산소를 찾기조차 힘들 것 같은 상황이었어서 2007년에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 현재의 위치에 가족납골당을 만들어서 합장하였습니다.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대회 당시 향토사학자 최순식 선생께서 “곧 국가에서 김덕명 장군님 묘역을 성역화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위낙에 험한 산골짜기에 묘역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가족묘를 만들어서 이장(移葬)을 했습니다.

Q 증조부께서 주요한 지도자로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훨씬 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서지 않아도 될 자리에 스스로 나서셨던 것은 분명 그만한 까닭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극심하게 부패한 조선왕조 말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 답답한 세상을 혁파해야겠다는 각오를 굳히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당시 증조부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족을 두고 죽을 길을 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필부(匹夫)라면 그런 일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봐야겠지요. 역설적으로 증조부님께서는 참으로 대장부였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개인의 안위보다는 고통 받는 백성들과 함께 의기를 들어올린 증조부님의 결단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크게 일조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동학농민혁명군은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몰아내서 보국안민하고자 봉기한 것이지 왕을 끌어내고나서 자기들이 왕권을 쥐려고 한다는 논의 등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역적이라는 인식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던 진짜로 참된 애국자들이 바로 동학농민혁명군이지요. 역적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Q 지난해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제8대 회장으로서 저희 재단, 천도교와 함께 120주년 기념대회를 공동개최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소감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처음 120주년 기념대회를 성대하게 치른다고 들었을 때 꼭 120주년에만 큰 행사를 할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매해 성대하게 치러져도 부족하지 않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12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되돌아보자면 지금까지의 기념행사 중 그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 일사분란하게 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단과 유족회, 천도교가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화합의 계기가 있었기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사업 추진 역시 재단과 유족회, 천도교, 학자대표 4단체가 6월 11일(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 단일안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날로 국가기념일이 정부에 건의되어 서둘러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참여자 분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나 기념사업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을 위해서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동학 농민혁명군 확대 · 재편, 백산봉기

김원철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회장



Q 김원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여 년간 교직에 있었으며, 현재는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회장과 부안문화원장, 부안마실축제제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김원철이라고 합니다.

Q 회장님께서 동학농민혁명과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2009년 이전에는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대회가 백산면 주민 위주로 진행되어 전체적인 부안군민의 호응을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백산대회를 널리 홍보하고 백산의 위상을 부안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2009년부터 군(郡) 행사로 승격시켰습니다. 저도 이와 함께 사업회의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동학농민혁명과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했던 1994년, 백산면민 분들이 주축이 되어 백산성보존회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회장을 맡아주셨던 김남용 전회장님을 비롯해 백산면민들이 뜻을 한데 모아 기념식과 학술대회 개최하는 등 백산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셨고, 저희도 그분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기념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에서 백산봉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반봉건이라는 목표에서 시작 된 동학농민혁명이 백산대회를 거치며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산대회를 통해 격문과 4대명의, 12개조의 군율을 발표하고 전봉준 장군을 총대장으로 정하는 등

동학농민혁명군 대오를 확대재편한 곳으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그 의의가 큼니다. 따라서 학술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Q 올해 백산봉기 기념대회는 특별하게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동안 4월 26일을 전후로 백산봉기 기념대회가 치러져 많은 부안군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행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백산면으로부터 백산면민의 날 행사와 백산봉기 기념대회를 함께 개최해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어 받아들여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덕분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부안의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백산대회의 성지인 백산성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한 뒤 백산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백산은 해발 47m에 불과하지만, 부안, 김제, 고부, 태인 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배들평야가 한 눈에 들어오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동학농민군은 이곳에서 총대장 전봉준, 총관령 김개남, 손화중, 영술장 최경선, 총참모 김덕명, 오시영, 비서 송희옥, 정백현 등으로 편제를 정해 진영을 확대개편하고 연합부대를 구성하는 한편, 호남창의대장소의 이름으로 격문을 발표하고 농민들의 봉기와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부안은 동학의 대접주이신 용암 김낙철 선생의 고향입니다. 용암 선생은 1894년 4월 1일 부안의 동학교도들과 같이 행안면 송정리 신씨재각에 도소를 설치했으며, 줄포에도 도소를 설치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합니다. 용암선생은 전봉준 장군과는 노선을 달리해 중도노선을 지키며 동학농민군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안의 현감 이철화가 동학의 여러 접주들과 사전에 협의해 행정을 처리하여 희생자를 줄인 도소가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던 김기중 선생의 묘가 상서면 개암사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사발통문에 직접 서명에 참여하신 황흥모 지도자의 묘소가 주산면에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천도교 최초의 수도원인 호암수도원이 상서면 감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선양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까?

현재 백산대회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산대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산대회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안군, 부안군의회와 저희 사업회가 협심해 백산대회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백산대회 재조명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백산성 주변을 정비하고 동학농민혁명 백산기념관을 설립하는 등 백산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재단 이사로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기념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수년간 논의했음에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기념일을 제정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으며 백산봉기의 위대함을 깨닫고 부안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게 알게 된 것은 무척 보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제 힘이 닿는 곳까지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의 선양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학혁명백산창의비



최시형과 동학의 푸른 꿈을 함께한 손천민(孫天民, 1857-1900)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동학농민혁명 시기 동학교단을 이끈 지도자는 2대 동학교주 최시형이란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함께 나누는 손천민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니, 잊혀진 인물인지도 모른다. 손천민은 최시형의 최측근에서 조안을 아끼지 않았고 각종 문서를 작성하는 등 핵심 참모역할을 하였던 인물이다.

1880년대에 들어와 동학은 충북 전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뒷날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충북 출신의 출중한 인물들이 이 무렵 대거 동학에 들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손병희(1861-1922), 서장옥(1851-1900) 등이다. 손천민(1857-1900)도 그 중의 하나이다.

손천민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일면 신송리 솔피마을 출생으로, 학식과 문장이 매우 뛰어났으며 철저히 동학의 길을 걸은 인물이었다. 그는 아전의 아들로 태어났다. 동학에 들어온 것은 1882년으로, 그 이후 최시형 손병희와 함께 열심히 동학을 포교하였다.

손천민은 동학교조신원운동에도 앞장을 섰다. 동학교단은 1892년 7월부터 대대적인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해월 최시형은 서장옥과 서병학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주 솔피마을 손천민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교조신원운동 전개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였다. 동학도들은 공주와 삼례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주 최제우의 신원을 정부에 요청하였는데, 1893년에 들

어와 광화문 복합상소가 추진되었다. 이때 상소문을 비롯한 거의 모든 문서는 문장이 뛰어난 손천민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화문 복합상소는
청주 솔피에 있는 손천민 집에서
1차 준비를 끝낸 뒤,
1893년 2월 서울로 올라가 추진되었다.
중책을 맡은 인물은 손천민을 비롯해
손병희 · 김연국 등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온건하고 합법적인 광화문 상소청원운동이 정부에 의해 수용될 가능성은 없었다. 남은 것은 실력행사 뿐이며, 그것이 바로 1893년 3월부터 추진된 보은 장내리 집회였다. 이때 26명의 대접주기 임명되었는데, 손천민은 청의대접주로 청주 일대를 관할하였다. 전라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최시형은 부정적으로 대응하였다. 최시형은 손천민 등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만류하기도 하였다.

1894년 8월 민족적 위기가 가중되자, 전봉준은 9월 10일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일본을 상대로 한 싸움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최시형에게도 사람을 보내 같이 봉기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때 동학교단 내부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자고 최시형을 설득하였는데, 그 중심 인물이 서장옥 · 황하일이었다. 손천민도 최시형을



설득하는데 협조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교단 소속 동학군은 손병희가 직접 인솔해 전봉준부대와 연합하기 위해 논산으로 향하였다. 그 무렵 청의대접주로 활동하던 손천민은 서장옥과 함께 휘하 동학도를 인솔해 청주성 공격을 감행하였다. 손천민은 자신의 집이 있는 솔피마을에서 청주성 공격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

솔피마을에 모여든 동학도들은 화승총과 칼·화약을 마련하고 마을 뒤쪽 골짜기에서 훈련도 하였다. 동학군은 9월 23일경부터 청주성을 공격하였다. 1만명은 죽히 되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관군은 동학 근거지로 지목된 솔피마을 등을 철저히 소탕하였다. 이때 손천민의 집도 불탔을 것이다.

그뒤 손천민은 최시형을 모시고 남진하였다. 최시형은 동학교단 보위차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손천민은 해월을 모시고 남진한 뒤, 12월에 들어와 다시 북상하였다. 손천민은 해월과 함께 무주를 거쳐 영동을 지나 보은에 도착한 것이 갑오년 12월 17일이었다. 이들은 보은 북실에서 머물렀는데, 이를 안 일본군과 민보군 등이 습격하여 밤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다행히 손천민은 해월을 모시고 피신할 수 있었다.

이들은 12월 24일 음성 무극의 되자니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무사히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이들은 12월 24일 음성 무극의 되자니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무사히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그뒤 최시형은 1885년 겨울 원주 치악산 밑 수레마늘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그 자리에는 손천민, 손병희, 김연국 등이 함께 하였다. 해월은 세 사람에게 각각 송암, 의암, 구암이라는 호를 내려 동학의 도를 이어가도록 하였으나, 1897년에 해월이 의암 손병희에게 도통을 전수하면서 동고동낙하던 세 사람의 운명도 달라졌다.

그뒤 해월이 1897년에 잡혀 이듬해 처형되자, 손병희는 손천민을 성도주(誠道主), 김연국을 신도주(信道主), 박인호를 경도주(敬道主)로 삼아 동학을 이끌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분열만을 자초하였다.

손천민은 해월이 처형된 뒤 부하 서우순과 함께 청주 산외면 서상옥의 집에 있으면서 포덕에 열중하다가 끝내 체포되어, 18년 동안 동학을 포덕한 죄로 1900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손천민이 해월을 도와 이루고자 하였던 푸른 꿈은 무엇이었을까?



나주목사 내아 내부 모습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1

함박산 전투지

동학농민혁명 제2차 기포 때 손화중 장군과 최경선 장군은 일본군이 바다를 통해 전라도로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비해 광주에 남았다. 그리고 나주목사 민종렬이 수차례에 걸친 동학농민혁명군(이하 농민군)의 공격을 막아낸 나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격했다. 정보대로 일본군이 바다를 통해 공격해올 경우 나주의 관군은 일본군과 연합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1894년 10월 21일 농민군은 광주의 침산 일대에서 도통장 정태완이 이끄는 나주의 수성군과 전투를 벌여 패했으며, 11월 13일 역시 광주의 용진산 전투에서 패해 후퇴했다.



나주목사 내아 전경



합박산 전투지 부근 나주성향공원

이후 11월 23일 손화중, 최경선 장군은 광주지역 농민군을 이끌고 오권선 접주가 이끄는 나주의 농민군과 합세해 재차 나주성 공격에 나섰다. 『금성정의록』에는 ‘이날 수만 명의 농민군이 금안면에 있는 남산촌의 태평정 등지에 나아가 주둔하고, 읍과 10리가량 떨어진 곳까지 와서 나주성을 도륙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라 언급되어있다. 이들은 나주성 북문 밖 합박산까지 접근했으나 밤이 되면서 손가락조차 펴기 어려울 정도로 몰아닥친 강추위 때문에 남산촌 쪽으로 후퇴했다고 한다. 수성군 측의 기록은 이와 차이가 있다. 이날 밤 수성군 측 막사에 불길이 옮겨 붙은 것이 화약에까지 번져 터지면서 대포를 연달아 쏘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농민군 측에서는 이를 관군 측의 대포 공격으로 오해해 남산촌으로 후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날인 11월 24일 수성군 도통장 정진석이 남산촌으로 후퇴한 농민군을 공격하기 위해 출진했다. 수성군은 남산 앞에 당도해 풀숲에 몸을 숨기고 농민군의 동정을 엿보았다. 농민군은 소를 잡아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모두가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수성군은 천보총을 쏘며 공격했고, 농민군은 갑작스런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 나주의 유생 이병수는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고 흐르는 피가 냇물을 이루었다’고 농민군의 피해상황을 기록했다.

11월 27일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수만 명에 이르는 농민군을 이끌고 광주로 돌아온 손화중 장군은 12월 1일 휘하의 농민군을 해산하고 광주를 떠났다. 이후 고창군 질마재에 있는 이모씨 재실에 숨어들었다가 12월 11일 주민들에게 붙잡혀 고창현에 수감되었다가 일본군에 넘겨졌다. 최경선 장군 역시 광주를 떠나 몸을 숨겼으나 12월 3일 화순 동북에서 체포되어 일본군에 인도되었다.

이후 손화중, 최경선은 전봉준 장군과 함께 나주에 수감되었다가 서울로 압송되었

“
나주의 유생 이병수는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고
흐르는 피가 냇물을 이루었다’고
농민군의 피해상황을 기록했다.

”

고, 일본의 사주를 받은 조선정부의 재판을 받고 1895년 3월 29일 사형이 선고된 후 교수형에 처해졌다.

나주목사 내아(內衙) 전봉준·민중렬 회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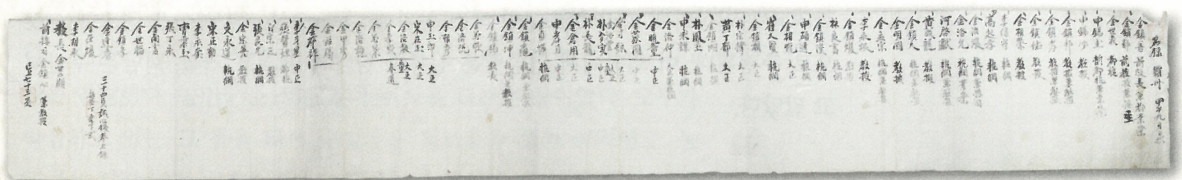
나주목사 민중렬은 1894년 4월부터 나주에 수성군을 조직해 농민군의 공격에 대비했다. 수성군의 주요 간부직을 맡은 인물들은 대부분 나주를 대표하는 향리 가문 출신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도통장에 호장 정진석, 후군장에 김창균, 난후별장에 박재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수성군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나주목사 민중렬은 조선정부측과 농민군 사이에 맺어진 전주화약에 따라 귀가하는 농민군의 신변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32명의 농민군을 살해한 인물이다. 나아가 나주목사 민중렬과 그 휘하의 관군 등은 한양으로 진군하는 농민군의 후방에서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적대세력의 근거지였다. 따라서 최경선 장군은 나주의 대접주 오권선과 합세해 1만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7월 5일 서성문을 공격했다. 그러나 나주목사 민중렬, 도통장 오권선이 지휘한 수성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나주성 점령에 실패하고 말았다.

전봉준 장군은 이후 최경선 장군에게 나주성을 공격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고, 더불어 농민군에 호의적이었던 전라감사 김학진에게 복귀하는 농민군을 무단으로 살해한 나주와 금구의 수령을 파직할 것을 요구했다. 김학진은 이를 받아들여 7월 18일 나주목사 민중렬과 나주 영장 이원우를 파직했고, 19일에는 금구현감 김명수도 파직했다. 그러나 나주목사 민중렬 파직에 응하지 않은 채 후임자의 부임을 막아가며 농민군에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전봉준 장군은 이 문제를 물리적 해결보다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전봉준 장군은 8월 13일 전라감사 김학진의 서찰을 들고 비무장인 상태로 부하 10여 명과 함께 나주목으로 들어가 민중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봉준 장군과 민중렬의 면담은 나주목 내아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에서 전봉준 장군은 전라감사와 합의된 관민상화에 따라 상호대립 해소를 위해 나주 수성군의 해산을 권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담에서 민중렬은 전봉준 장군의 제의를 거절,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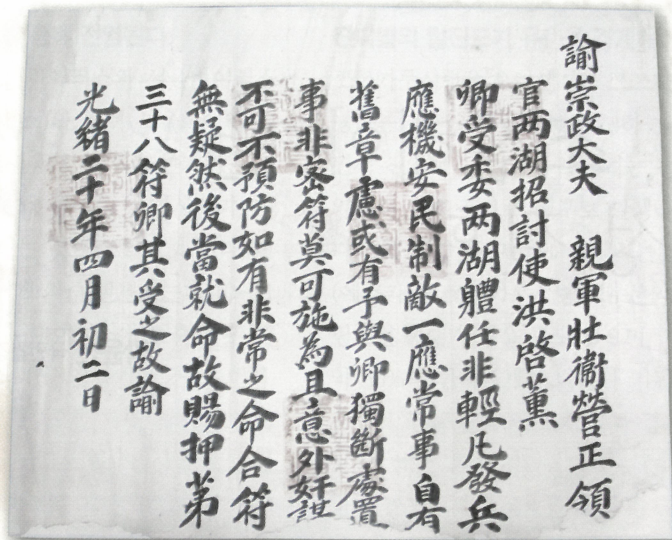
합박산 원경



7월의 유물 - 나주명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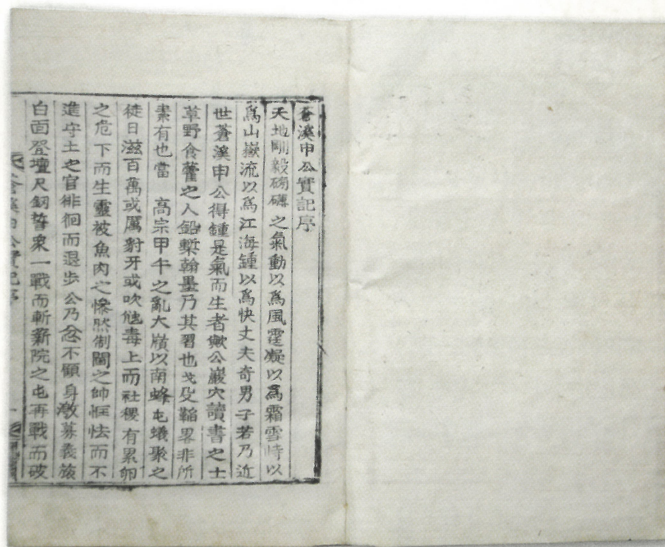
집강소 통치기에 작성된 나주·함평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이다. 7월과 9월에 각각 한번 씩 작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의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8월의 유물 - 홍계훈 밀부유서



1894년 4월 2일 고종이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며 밀부 38부와 함께 내린 밀부유서다. 이 밀부유서는 당시 군권이 홍계훈에게 있었으며, 전주화약이 전봉준과 홍계훈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9월의 유물 - 창계신공실기



동학농민혁명 당시 경상도 지역에서 민보군으로 활동한 유생 신석찬이 일기체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다. 경상도 의흥·군위·칠곡 지역의 민보군 활동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가을철, 조심해야 할 3대 열성 질환

박윤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유행성출혈열과 렘토스피라증, 찻찻기무시병 등 가을철 3대 열성(熱性) 질환이 산과 들로 나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 사람들은 이 질환을 낯설게 생각하지만 성묘와 주말농장의 밭일, 야외 체육대회 등을 통해 드물지 않게 발병되고 있다. 3대 열성질환의 원인과 예방법을 살펴본다.

쥐의 배설물과 타액이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유행성출혈열의 원인균은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인데, 각각 등줄쥐(한탄바이러스)와 집쥐(서울바이러스)가 매개체이다. 들쥐, 집쥐, 실험용 쥐의 폐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배설물을 통해 배출돼 공기를 오염시키며, 이를 사람이 흡입할 경우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농부나 군인에게 자주 발병되는데 10~11월에 유독 많이 발생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약 9~35일 후 질병을 유발하는데 평균 잠복기는 2~3주이다.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병력과 진찰 소견을 토대로 혈액검사를 통해 한탄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증가를 통해 진단하게 되며, 아직까지 원인 바이러스에 대한特效약이 없다. 발병 초기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증상과 동반된 합병증에 대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렙토스피라균에 오염된 물에 들어가면 안된다.

렙토스피라증의 원인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들쥐와 족제비, 개 등의 배설물로, 이 균에 의해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피부를 통해 전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9~11월경에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습한 토양이나 물에서 장시간 일하는 농부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7~12일이고 임상 증상은 매우 다양하여 무증상 감염과 황달이 없는 경증 감염이 많고 드물게 황달을 나타내거나 소변량의 감소 등 중증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갑작스런 발열,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결막 충혈 등이 나타나고 이런 초기 증상 2~3일 후 흉통, 기침, 호흡 곤란, 객혈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렙토스피라증은 증상과 징후 및 항체검사를 종합해 진단하게 되며, 환자의 임상소견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해당 항생제를 투여해야 호전될 수 있다.

잔디밭의 털진드기 유충을 경계해야 한다.

쯔쯔가무시병은 오리엔시아 쯔쯔가무시라는 균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서 전염된다. 갑자기 발생하는 발열과 두통, 볼개감, 쇄약감과 발병 후 1주 전후로 발생하는 피부발진이 특징이다. 진드기가 문 자리에 발생하는 피부 병변인 피사 딱지(에스카)는 쯔쯔가무시병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발견된다. 림프절 종대가 있을 수도 있으며, 기침은 발열 첫 주 동안 약 30%의 환자에게서 나타나 기관지염, 간질성 폐렴, 심근염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맥박 증가, 혈압 하강, 섬망, 혼수 경력을 동반하는 뇌염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해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풀밭에 눕거나 옷을 함부로 벗어 놓지 말아야 하며, 산이나 밭 등 들쥐가 많은 지역에 가게 되거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벼 베기 등의 작업에는 특히 장갑이나 장화 등 보호 장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감기와 유사하지만 치료를 소홀히 하면 위험해 질 수 있다.

세 질병 모두 감염초기에 고열, 오한, 두통 등의 '기본증상'이 나타난다. 쯔쯔가무시병은 여기에 피부발진이 더해지고,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을 동반하기도 한다. 잠복기가 1~2주일이므로 야외활동 후 이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진찰을 받아야 한다. 렙토스피라증은 근육통과 결막충혈 등이 '기본증상'에 더해지며, 잠복기는 10일 정도다. 간이나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치료받지 않으면 숨질 수도 있다. 유행성출혈열은 역시 감기처럼 시작되지만 진행 단계가 복잡적이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증상 완화 요법을 시행한다. 유행성출혈열은 예방백신이 있다.

※ 본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 『건강보험』 2010년 10월호 '병을 이기는 방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석대들 전투 재현 전시물(농민군이 사용한 장태)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찾아서

이대흠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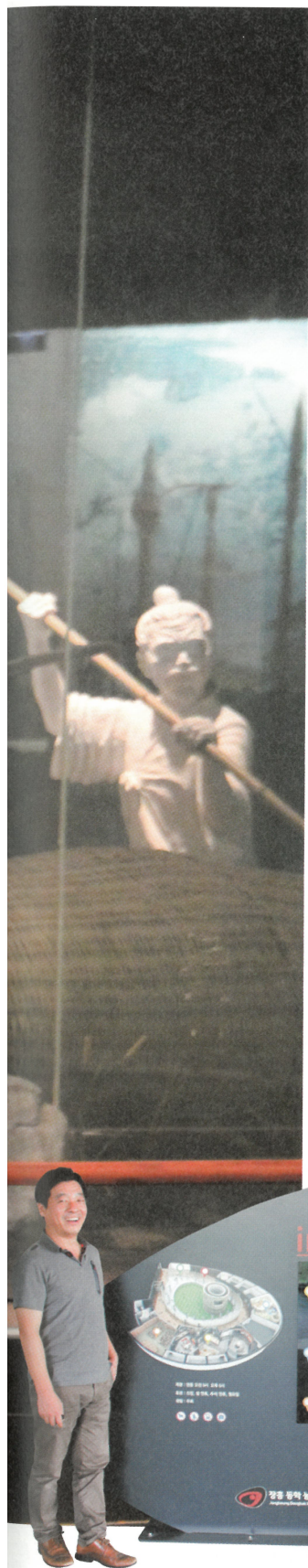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의 4대 전적지는 황토현 전적지, 황룡 전적지, 우금티 전적지, 석대들 전적지다. 이 중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군(이하 농민군)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바로 장흥의 석대들 전적지다. 올해 4월 26일 석대들 전적지에 개관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하 기념관)을 방문해 이대흠 운영실장(기념관)과 장모창 학예연구관(장흥군청)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담을 나누며 떠올렸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최후까지 역사에 목숨을 부딪쳤던 장흥 농민군의 혼이었다.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의 역사적 의미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일반적으로 우금치에서 통한의 패배를 맞본 농민군이 논산 황화대, 김제 원평, 태인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으며, 결국 주력부대가 해산되고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처형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대흠 운영실장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비록 혁명의 불빛이 희미해졌을지는 모르나 장대장군이라 불렸던 이방언 장군을 구심점으로 장흥에 모여들었던 농민군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벽사역, 장흥부성 등을 점령하며 승승장구했다.

이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이대흠 운영실장은 영웅들이 사라진 역사이기 때문이라 답했다. 영웅주의적 시각의 동학농민혁명사는 지도자들의 죽음과 함께 끝을 맺고 만다는 것이다. 그는 장흥의 석대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석대들 전투야말로 민중봉기의 극점에서 실패로 끝나게 된 마지막 지점이었다고 얘기했다. 3만여 명의 농민군이 참여해 2천에서



이대흠 운영실장과 장모창 학예연구관

3천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대규모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농민군들은 석대들 전투 이후에도 일본의 침략야욕에서 나라를 구한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전라남도에서는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1915년까지 활발한 항일의병투쟁이 벌어졌다. 1만 5천에서 1만 7천여 명의 의병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의 의병이 5백 명가량으로 추정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석대들 전투 이후 도서지방으로 피난했던 농민군들이 항일의병에 가담했던 것으로 본다면 아기가 척 들 어맞게 된다. 석대들 전적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구국 영 용들의 의지를 품고 있는 것이다.

기념관 설립배경

장모창 학예연구관은 기념관이 어떻게 설립되었냐는 물음에 대해 사적지 지정에 관한 이야 기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기념관 건립사업을 수립한 이후 석대들 전적지를 사적지로 지 정 신청했으며, 2009년 5월에 국가지정사적 제498호로 지정됐다. 기념관은 2010년부터 본 격적으로 건립공사가 시작되어 2014년 완공되었다. 이후 1년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 를 마치고 올해 4월 26일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기념관의 설립위치 또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장모창 학예연구관은 기념관이 세워진 곳 이 과거 석대들에 존재하던 언덕인 ‘작은 석대’가 있던 곳이며, 동학농민혁명 이후 여러 공사 를 거치며 훼손된 ‘작은 석대’를 복원하는 의미로 현재 위치에 기념관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대훈 운영실장은 기념관이 중정(中庭)을 품은 독특한 구조로, 전체적인 모습은 살아있는 역사의 눈동자를 형상화한 것이라 덧붙였다.



석대들 전투 재현 전시물(일본군)



영원의불 코너

기념관 살펴보기

기념관 내부는 크게 영상실, 전시실, 체험장, 토론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데스크를 지나 가장 먼저 보이는 영상실에는 15분가량의 교육영상이 정해진 시간마다 상영된다. 해당 영상은 동 학농민혁명의 전체적인 내용과 장흥의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석대들 전투까지 전체적인 부 분을 아울러 설명하며, 실사영화와 만화영화를 넘나드는 구성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전시실은 전시물과 각종 기록물, 영상을 통해 장흥 동학농민혁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민군과 일본군의 모형을 통로양쪽으로 전시해 석대들 전투를 재현해 둔 부분에서는 마치 역사 현장의 한복판에 서있는 듯 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전시실 마지막을 장식한 [영원의 불]코너는 중앙에 홀로그램으로 표현된 불꽃 너머로 이름이 밝혀진 석대들 전투 희생자 457명의 명단이 보이는 구조가 인상적이었다. 이대흠 운영실장은 아직도 많은 희생자 분들이 밝혀지지 못한 상태지만, 이정도 숫자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장흥사람들에게 흐르는 역사적 핏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언급했다.

체험실은 사발통문에 이름 새기기, 장대 굴리기, 윤성도 뱃사공 되어보기 등 아동청소년들이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바로 옆에 위치한 토론실은 현재 동학농민혁명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기념관의 미래

이대흠 운영실장은 앞으로 기념관의 운영에 대해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하였다. 현재 역사에 대한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기념관이 역사적 체험학습을 충분히 기획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추어져있으며, 체험실, 토론실 등을 적극 활용해 역사체험교육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념관 주위에 향교,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 등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곳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연결해 역사탐방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대흠 운영실장은 이 역사탐방길이 조성되면 방문객들이 역사체험을 통해 하루를 뜻 깊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대담 이후 기념관 입구에서 기념관 건립의 실무를 수행한 대담자 두 분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기념관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서 소박하지만 단아하고 강인한 우리 산하의 들꽃이 가득 머금은 진한 향기가 피어나는 것만 같았다. 긴 겨울의 한파를 이겨낸 뿌리, 줄기, 가지의 노고가 있었기에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 맺을 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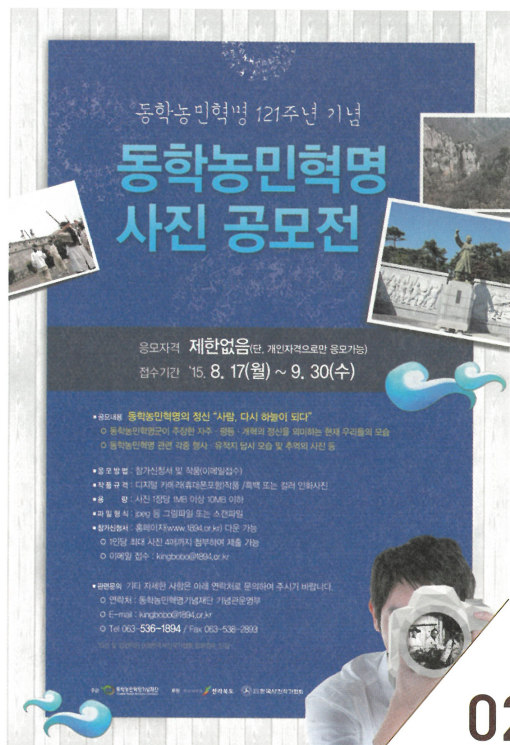
시발통문



01

재단 2기 8차 이사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8차 이사회가 지난 7월 7일 용산역 5호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전차회의록 보고 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현황보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추진현황보고,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보고, 2015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위탁(도비) 보조금 추가경정예산 반영보고, 제12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추진현황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규 운영위원회 구성보고 등 보고안건에 이어 주요사업 추진현황보고로 진행되었다. 이사들은 각 안건에 대해 수정 및 보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념재단의 중추적인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시점인 만큼 사업수행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와 함께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을 표했다.



02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 사진공모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했다. 우리 기념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가 후원한 이번 사진공모전은 8월 17일(월)부터 9월 30일(수)까지 작품사진을 공모·접수하였다. 사진공모의 기준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주창한 자주·평등·개혁 정신이 현재화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관련행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답사 모습, 예전에 촬영된 유적지 모습 등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10월 5일(월) 발표한다. 수상작은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0점을 각각 뽑는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금과 함께 은 물론이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인정점수도 주어진다.

이번 사진공모전 참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에서 출품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출품작품 제한은 4점 이내이다.



03

김덕명 장군 후손의 집에서 고서(古書) 50여 권 발견

2015년 8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덕명 장군의 후손이자 전(前)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역임한 김석태 고문 집에서 고서 50여 점이 발견되었다. 이 고서는 집안 대대로 전해져온 나무꺾꽂이 속에 들어있었다.

고서가 발견된 다음날인 8월 12일 오랫동안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해온 신순철 원광학원 이사장, 신영우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김석태 유족회 고문 집을 방문하여 나무꺾꽂이 속에서 나온 고서 총 52권을 살펴보고 있다. 고서들 중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갑오년 전후 김덕명 장군의 가계형편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확인되었다. 발견된 고서의 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현재 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04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건의일(전주화약 6. 11) **반대 관련단체 및 지자체 방문협조**

2015년 3월 3일 대전에서 개최되었던 동학농민혁명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국가기념일 추천일로 6월 11일(전주화약일)이 결정되었다. 전국 관련단체 30곳과 해당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가 상정한 단일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 반대의견을 개진한 관련단체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한 시간을 갖은 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다수결 표결절차에 들어갔고, 표결결과 참석단체 30곳 중 찬성13, 반대6, 기권1로 6월 11일 국가기념일 추천일이 단일안으로 결정되었다.

이날 이후 일부 지역단체에서 6월 11일 국가기념일 추천일 선정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기념재단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관련단체 및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이에 해당기관은 33곳 중 찬성1, 반대3, 의견없음29였고, 관련단체는 30곳 중 찬성27, 반대3이었다.

위와 같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국가기념일추진위원회(4인 / 기념재단 이사장, 천도교 교령, 전국유족회 회장, 역사학계 대표)는 국가기념일 추천일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관련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방문하여 추진위원회 활동경과 및 추천일 결정에 대한 절차 등을 설명하고 반대단체 관계자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반대사유 등을 경청한 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어렵게 정해진 6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추진위에서 방문한 자치단체는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곳이었다.



05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장 윤석모)에서는 [찾아가는 기념관] 3분기 전시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9월 23일 까지 광주 송정역, 광주역, 남원역, 목포역 4곳에서 각 2주간 전시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함성!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 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동용 전시 판넬을 원하는 단체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여한 전시물은 2주간 전시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신청을 통해 전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 프로그램 대여 신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에서 할 수 있다.



06

동학농민혁명 원로초청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26일 동학농민혁명 원로 분들을 초청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곤, 이하 추진위) 위원들과 한승헌 변호사, 한병도 천도교연원회 의장, 이상식 광주전남기념사업회 회장, 정남기 전(前)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전해철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기여한 원로들이 참석했다.

추진위에서는 이날 참석한 원로들에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원로들은 추진위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 추천일로 선정한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으며, 기념일 제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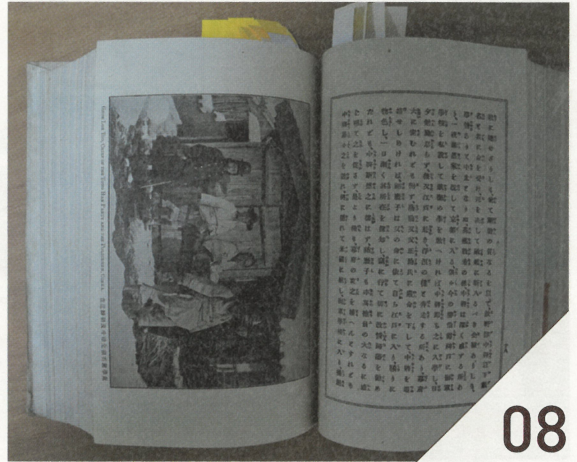




07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단체관람 증가추세

한성고등학교 중국인 교환학생 50여명, 무안농협 주최 [로컬푸드 견학] 참여자 160명, 전북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중인 경북 23개 시·군 공무원 36명, 정읍중학교 학생 65명 등 여러 단체관람객들이 방문했다. 단체관람객의 방문빈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쾌적한 관람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유물을 구입하고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8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련 유물구입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장 윤석모. 이하 기념관)에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을 섭외, 총 216종 380점의 매매신청을 받았다.

기념관은 현재 총 5,331점의 유물을 보유중이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유물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매매신청 된 유물을 대상으로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성, 진위여부, 소장가치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입예정유물을 선정했다. 구입예정유물은 화상자료 공개를 통해 적법한 유물임을 확인 후 매매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입된 유물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을 위한 전시·연구·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광복 70주년 광복에서 통일로 8·15 자전기 국토순례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

지난 8월 9일 ‘광복 70주년 광복에서 통일로 8·15 자전기 국토순례단’(이하 국토순례단)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을 방문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조원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의원 10여 명과 시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국토순례단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구성되어 국토순례 대장정에 올랐다. 이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학생운동기념관에서 8월 9일 오전에 출발하여 정읍 백정기 의사기념관, 정읍 황토현전적지 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지, 부천 안중근공원, 김포 독립운동기념관을 순례하고 8월 1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향단에서 해산했다. 행사 첫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을 방문한 국토순례단은 먼저 구민사를 방문해 동학농민혁명군 위패 앞에 참배하였다. 이어 동학농민혁명교육관에서 신순철(기념재단 이사, 원광학원 이사장)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바로알기’ 특강을 들었다.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지난 8월 5일 전주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와 전적지를 한데 묶어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전북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혁명 활동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했던 전라감영(전주)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주가 우리나라 근대민주주의 효시(嚆矢)이며, [대한민국 근대민주주의 성지]라는 점을 부각시켜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동학농민혁명 핵심 책원지였던 전주가 “왕(王)의 도시, 민(民)의 도시”가 양립했던 역사적 맥락을 역사문화자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전주화약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켜 관민상화(官民相和)의 긍정성을 현재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광재 작가, 동학농민혁명 모티브 소설로
흔불문학상 수상

MBC 전주문화방송사는 지난 8월 11일 [제5회 혼불문학상] 당선작으로 <바람보다 큰>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수상작 <바람보다 큰>(작가 이광재)은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창작된 장편소설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전봉준, 김개남 등 동학농민혁명 당시 등장인물의 내밀한 개인적 고뇌부터 혁명의 전체적인 전개과정 등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재현한 작품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이 시대로 다시 불러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광재 작가는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평전 『봉준이 온다』를 집필하기도 했다.

흔불문학상은 대하소설 『흔불』의 작가 최명희의 문학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한편 한국문단의 미래를 짊어진 문학인들의 창작열을 드높이기 위해 2011년 전주문화방송사가 제정하였다.



고창군, 무장기포 홍보를 위한 포스터 공모

고창군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 8월 20일 (목)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국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고창 기념사업회 진윤식 부이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의 의미와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 길을 따라 그날, 그 함성 속으로 고창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 아래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모전 포스터 작품 접수마감은 9월 30일이며, 수상작품은 금상(6점), 은상(12점), 동상(21점) 등 39점이다. 선정된 작품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행사장을 비롯하여 역사기록화 등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알립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대회 개최



● 대회 개요

- 대 회 명 |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대회
 - 대회구호 | 다함께 힘을 모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하자
 - 일 시 | 2015년 10월 12일(월) 10:30~12:00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대 상 | 참여자유족, 천도교인사, 관련단체 ·
학자, 시민 등(약 500여명)
 - 주요내용 | 식전공연, 국민의례 및 대회사, 창의문
낭독, 기념가 합창 등
 - 공동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
혁명유족회, 천도교
 - 주 관 | 동학농민혁명제121주년기념대회
추진위원회
- ※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 관련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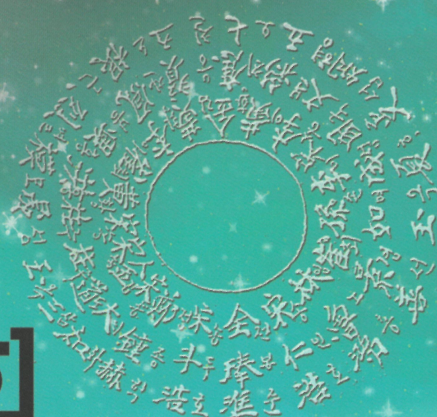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
(063-538-2896)
-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02-723-1894)
- 천도교 중앙총부 교무관(02-738-6623)

다함께 힘을 모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동학농민혁명 121주년 기념대회



- 일시 : 2015년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